

《시경》 비흥의 의미 생성 메커니즘 연구

— 표상 이론적 관점에서의 고찰 —

임 해 탈*

<目次>

- | | |
|-------------------|----------------------|
| I. 서론 | III. 비흥의 역사적 인코딩과 해석 |
| II. 이론적 관점과 연구 방법 | 전통 |
| | IV. 사례 분석 |
| | V. 결론 |

<중문초록>

《詩經》中的比興作為中國詩學的重要概念，長期以來一直是學界關注和討論的核心問題。既有研究主要從修辭功能或表現手法的角度對其進行闡釋，但此類研究尚難充分說明同一比興結構為何能夠在歷史接受過程中持續生成新的意義，並產生多樣化的解釋路徑。

本文以斯圖亞特·霍爾(Stuart Hall)的表徵(representation)理論及編碼 / 解碼(encoding/decoding)模型為分析框架，將比興重新界定為一種意義生成機制。為此，本文考察了比興的歷史接受過程及其再編碼現象，並以〈關雎〉〈蒹葭〉〈采薇〉〈桃夭〉為中心，分析比興在具體文本中如何實現意義的生成與建構。

研究發現，比興並非單純的修辭裝置，而是一種通過自然意象、情感表

* 전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

達與讀者闡釋活動相互作用而生成意義的結構性機制。《詩經》的多義性也並非源於解釋的不完整或偶然誤讀，而是來源於比興結構本身所具有的開放性，以及歷史再編碼過程中不斷形成的意義重構機制。同一自然意象在不同歷史時期與文化語境中不斷獲得新的意義，表明比興始終作為一種促進意義生成與協商的文化機制發揮作用。

本文通過將比興從表現技法層面提升至意義生成結構層面加以考察，為解釋《詩經》長期以來所呈現的多義性現象提供了新的理論視角。同時，本文也嘗試探索中國古典詩學與現代文化理論之間進行結構性對話的可能性。

I. 서론

중국 시가 전통에서 《시경(詩經)》은 시적 전통의 기원적 텍스트로 지속적으로 인식되어 왔다.¹⁾ 《시경》은 단순히 후대 시가 형식의 규범을 확립한 고전이라기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둘러싼 사유의 전통을 열어 놓은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 속에서 ‘비(比)’와 ‘흥(興)’은 《시경》을 해석하는 핵심 개념으로 기능해 왔으며, ²⁾중국 시학사의 전개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호출되어 왔다.

한편 한국 학계에서도 《시경》의 비흥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기존 연구는 대체로 세 가지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첫째, 비흥을 형상사유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는 자연 이미지와 정서 표현의 관계를 중심으로 비흥의 인식 구조를 설명하고자 하였다.³⁾ 둘째, 비흥을 상징 체계의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이다. 이들 연구는 《시경》

1) 袁行霈, 《中國詩學精神》,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2) 阮元 校刻, 《十三經注疏·毛詩正義》, 北京: 中華書局, 1980.

3) 박순철, 〈《시경》의 부·비·흥의 사유방식 연구〉, 《경학》 제8집, 2007.

의 자연 이미지가 단순한 수사 표현이 아니라 특정한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 기호임을 강조하였다.⁴⁾ 셋째, 《모전》·《시집전》 및 조선 시대 부비홍론을 중심으로 비홍의 개념 형성과 해석 방식을 고찰한 연구도 이루어졌다.⁵⁾ 이러한 연구들은 비홍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대체로 비홍의 사유 방식이나 상징 체계, 혹은 전통 시학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비홍이 오랫동안 중국 시가의 본질적 특성으로 간주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어떠한 방식으로 생성되는가라는 문제는 아직 충분히 체계화된 이론적 설명을 얻지 못한 채 남아 있다. 기존 연구는 주로 수사학적 혹은 혼고학적 관점에서 비홍을 이해하며, ‘유발’, ‘비유’, ‘사물에 의탁한 표현’과 같은 표현 기능에 주목해 왔다.⁶⁾ 이러한 접근은 비홍의 언어적 형식과 표현 기법을 정리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해왔으나, 동시에 비홍을 상대적으로 고정된 수사 장치로 이해하게 만드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 결과 비홍이 삼천여 년에 걸친 시가 전통 속에서 어떻게 지속적인 해석 가능성을 유지해 왔는지, 나아가 《시경》의 동일한 텍스트가 왜 서로 상충하는 의미로 읽혀 왔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드러난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가 <관저(關雎)>이다. 이 작품은 한편으로는 ‘후비의 덕’을 찬미하는 정치·윤리적 텍스트로 해석되어 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녀 간의 감정을 노래한 서정시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텍스트 자체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시적 의미가 서로 다른 역사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고 재구성되는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점에서 비홍의 문제는 단순히 “어떻게 표현되는가”의 차원

4) 이채문, <《시경》 소재와 부비홍>, 《중국문학연구》 제12집, 1994.

5) 김수경, <조선시대(朝鮮時代) 부비홍(賦比興) 논의(論議)의 인식층위(認識層位)에 대한 고찰>, 《한국한문학연구》, 2017; 김수경, <경전해석방식으로서의 賦比興論>, 《중국어문논총》 제69집, 2015.

6) 박순철, <《시경》의 부·비·홍의 사유방식 연구>, 《경학》 제8집, 2007.

을 넘어, “의미가 어떻게 생성되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 문화연구, 특히 스튜어트 홀(Stuart Hall)의 표상 이론은 비홍을 새롭게 사유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적 단서를 제공한다. 홀에 따르면 의미는 텍스트나 사물에 고정적으로 내재된 속성으로 이해될 수 없다. 오히려 의미는 기호 체계, 문화적 맥락, 사회 구조가 맞물리는 과정 속에서 생산되며,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조정되고 협상된다. 다시 말해 의미는 발견되어야 할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역사적·사회적 조건 속에서 구성되는 동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은 《시경》이 오랜 수용사 속에서 보여 준 다의적 해석 현상과 구조적으로 높은 상응성을 지닌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을 제기한다. 스튜어트 홀의 표상 이론을 분석 틀로 삼을 경우, 《시경》의 비홍은 단순한 수사 기법을 넘어 하나의 의미 생성 메커니즘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 본 논문은 이 질문을 중심으로 비홍을 ‘저자의 인코딩-독자의 디코딩-문화 구조의 조절’이라는 동적 관계 속에 위치시키고,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에서 그것이 어떻게 의미를 생성·갱신해 왔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논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 차원에서는 홀의 표상 이론과 인코딩/디코딩 모델을 도입하여 비홍의 의미 생성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관점을 정립한다. 다음으로 역사적 차원에서는 고대 시학에서 ‘비’와 ‘홍’ 개념의 형성과 변화를 검토하고, 수용사적 맥락 속에서 비홍이 어떻게 반복적으로 재인코딩되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분석 차원에서는 〈관저(關雎)〉, 〈겸가(蒹葭)〉, 〈채미(采薇)〉, 〈도화(桃夭)〉를 사례로 삼아, 구체적 시적 맥락에서 비홍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한다. 특히 〈관저(關雎)〉, 〈겸가(蒹葭)〉, 〈채미(采薇)〉, 〈도화(桃夭)〉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들 작품이 《시경》 가운데서도 해석사적 대표성이 높고 오랜 해석사 속에서 다양한 독법이 축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작품은 각각 감정과 윤리의 관계, 자연 이미지와 정서의 형성, 역사적 경험의 의미화, 사회적 가치의 재구성이라는 서로 다

른 측면에서 비흥의 의미 생성 구조를 보여 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시학의 문제의식을 존중하면서, 구조적 차원의 대화를 통해 비흥이라는 고전적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 경로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흥의 재현 이론은 의미 생성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뿐이며, 본 논문의 논의는 일관되게 중국 고대 시학의 맥락 안에 위치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시경》이 오랜 시간 동안 보여 준 다의성 현상을 보다 설명력 있게 해명할 수 있는 이론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관점과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시경》에서 비흥(比興)이 의미 생성 과정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새롭게 이해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시편에 대한 분석에 앞서 의미가 어떻게 생성되고 해석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관점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스튜어트 홀(Stuart Hall)의 재현 이론, 특히 의미 생산과 인코딩/디코딩, 그리고 이데올로기 개입에 관한 논의를 핵심적인 이론적 자원으로 삼는다.⁷⁾

흥은 의미를 텍스트나 사물에 내재된 고정적 속성으로 보지 않고, 기호 체계와 문화적 맥락, 사회 구조의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생산되고 협상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이론적 입장은 비흥을 주로 수사 기법이나 표현 방식의 차원에서 이해해 온 기존 논의를 새롭게 검토할 수 있는 방법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7) Stuart Hall, Representation: Cultural Representations and Signifying Practices, London: Sage, 1997.

1. 재현 이론과 의미 생산: 분석 관점의 설정

문화연구 전통에서 ‘재현(representation)’은 언어가 현실을 단순히 반영한다는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오히려 재현은 의미가 생성되고 조직되며 사회적으로 유통되는 문화적 실천을 가리킨다⁸⁾. 홀에 따르면 인간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개인이 고립된 주체이기 때문이 아니라, 공유된 개념 체계, 언어 체계, 문화적 지식의 틀 속에서 사고하고 소통하기 때문이다. 의미는 바로 이 세 요소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홀은 의미 생성 방식에 대해 세 가지 주요한 경로를 구분한다⁹⁾. 첫째는 ‘반영적 경로(reflective approach)’로, 언어를 외부 현실의 직접적인 반영으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둘째는 ‘의도적 경로(intentional approach)’로, 의미를 저자의 의도나 주관적 사유의 표현으로 간주한다. 셋째는 ‘구성적 경로(constructionist approach)’로, 의미를 현실 그 자체나 저자의 내면에 귀속시키지 않고, 기호·문화·경험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구분을 《시경》의 읽기 실천에 적용해 보면, 앞의 두 경로는 비흥을 설명하는 데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반영적 경로에 따르면 <겸가(蒹葭)>에 등장하는 ‘백로’, ‘수심’ 등의 이미지들은 자연 풍경에 대한 묘사로 환원되기 쉽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복합적인 정서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반대로 의도적 경로에 입각할 경우, 시의 의미는 전적으로 저자의 ‘지의(志意)’에 귀속되며, 그 결과 동일한 <관저(關雎)>가 왜 서로 다른 시대에 ‘후비의 덕’ 혹은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읽혀 왔는지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비해 구성적 경로는 비흥이 장기간의 수용 과정 속에서 왜 지속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보다 적합한 관점

8) Stuart Hall, “The Work of Representation,” in Representation (London: Sage, 1997), 13-64.

9) Hall, “The Work of Representation,” 24-30.

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 의미 생성 메커니즘 그 자체에 대한 문제 설정은 기존의 전통 시학 해석에서는 충분히 체계화되지 못했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2. 인코딩/디코딩 모델과 시적 의미의 유동성

재현 이론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홀은 ‘인코딩/디코딩(encoding/decoding)’ 모델을 제시한다¹⁰⁾. 이 모델은 의미가 텍스트 생산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유통-수용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상되는 것임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분석 틀이다.

‘인코딩’이란 텍스트 생산자가 특정한 사회적 경험과 문화적 규범의 제약 속에서 의미를 기호 구조에 배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반면 ‘디코딩’은 수용자가 자신이 처한 문화적 위치와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기호를 해석하는 과정이다. 이때 생성되는 의미는 저자의 의도와 완전히 일치하지도, 독자의 자의적 해석으로 환원되지도 않으며, 양자 사이의 긴장 속에서 형성된다.

이 모델은 《시경》의 비홍 구조를 이해하는 데 특히 유효하다. 창작의 차원에서 비홍은 ‘선언하지 않고 말하기’, ‘사물을 통해 감정을 환기하기’라는 방식을 통해 정서, 윤리, 사회적 경험을 자연 이미지 속에 인코딩한다. 반면 수용의 차원에서 독자는 자신의 문화적 틀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 경로를 활성화한다.

예컨대 《모시서(毛詩序)》로 대표되는 경학적 해석은 시의 의미를 예제와 정치 질서로 안정적으로 귀속시키려는 해독 방식으로, 홀의 용어를 빌리면 ‘지배적 디코딩(dominant decoding)’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후대의 연정시적 독해나 현대 연구에서 제기되는 욕망·주체성 중

10) Stuart Hall, “Encoding/Decoding,” in Culture, Media, Language (London: Hutchinson, 1980), 128-138.

심의 해석은 ‘협상적’ 혹은 ‘대항적 디코딩’에 가깝다¹¹⁾.

여기서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는 점은, 홀이 제시한 세 가지 디코딩 유형이 실제 독자 경험을 경험적으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는 의미 이해 과정에서 문화적 위치와 권력 관계가 만들어내는 구조적 차이를 드러내기 위한 분석 모델이다. 본 논문 역시 이 구분을 고대 해석 주체에 대한 경험적 분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 속에서 시적 의미가 어떻게 조정되고 안정화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적 도구로 활용한다.¹²⁾

3. 비홍의 의미 생성 메커니즘: 구조적 모델의 제안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비홍은 단순한 수사 기법이 아니라 구조적인 의미 생성 메커니즘으로 이해될 수 있다. 비홍은 감정이나 사유를 직접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자연 이미지의 도입을 통해 독자의 이해 과정 속에서 의미가 점진적으로 형성되도록 유도한다.

〈검가〉를 예로 들면, 시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검가’, ‘백로’, ‘수심’, ‘괴안’ 등의 이미지는 명확한 개념적 의미를 지시하지 않는다. 대신 이 이미지들은 누적되면서 ‘도달 불가능함’, ‘거리감’, ‘지연’이라는 정서 구조를 형성한다. 독자는 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즉각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읽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생성에 관여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홍의 작동 방식은 ‘감정 → 언어’라는 선형적 전환이 아니라, 상징의 연쇄를 통해 의미를 지연시키고 이해를 활성화하는 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 핵심은 표현된 내용이 아니라, 이해의 경로를 조직하는 데 있다. 이러한 이론적 모델은 이후의 텍스트 분석에서 추상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본 논문은 제4장에서 〈관저〉·〈검가〉·〈채미〉·〈도화〉를

11) Hall, “Encoding/Decoding,” 136-138.

12) Ibid., 136-138.

사례로 삼아, 비홍이 자연 이미지의 배열과 반복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의미를 인코딩하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역사적·문화적 해석 맥락 속에서 그 의미가 어떻게 지배적·협상적·대항적으로 디코딩되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인코딩/디코딩 모델이 비홍의 다의성을 설명하는 분석 도구로서 실제 텍스트 차원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실증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4. 재현, 이데올로기, 그리고 의미의 협상

홍은 재현을 결코 중립적인 문화 실천으로 보지 않는다¹³⁾. 의미의 재현은 항상 특정한 사회 구조와 권력 관계 속에 위치하며, 그 과정에서 어떤 해석은 ‘정당한 것’으로 승인되고, 다른 해석 가능성은 배제되거나 주변화된다.

이러한 관점을 비홍 연구에 적용해 보면, 비홍은 초기 시가 전통에서 단순한 심미적 장치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경험과 가치 질서를 조직하는 데에도 관여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연 이미지가 윤리적·정치적 의미를 담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들이 특정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자연-인륜’의 상징적 대응 관계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홍은 개방성을 지니는 동시에 완전히 무제약적인 구조는 아니다. 그것은 상징 구조를 통해 이해의 방향을 유도하며, 다의성과 규범성 사이에 긴장을 형성한다. 본 논문은 현대적 의미의 이데올로기 개념을 선진(先秦) 텍스트에 직접 투사하려는 것이 아니라¹⁴⁾, 구조적 차원에서 비홍이 의미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13) Stuart Hall, “The Rediscovery of ‘Ideology’...” (London: Methuen, 1982), 56-90.

14) Hall, Representation, Introduction.

5. 이론 적용의 한계와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

물론 홀의 재현 이론은 대중문화와 매체 사회를 분석하기 위해 형성된 이론이며, 《시경》은 고도로 역사화된 고전 텍스트라는 점에서 양자는 분명한 차이를 지닌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대 문화 이론과 고대 시학 사이에 개념적 일대일 대응 관계를 설정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본 연구는 구조적 차원의 대화를 통해, 의미 생성 메커니즘이라는 공통의 문제의식 속에서 두 전통이 어떻게 비교 가능해지는지를 탐색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홀의 재현 이론은 해석의 권위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비홍의 의미 생산 논리를 드러내기 위한 분석 도구로 활용된다.

이와 같은 방법론적 전환을 통해 비홍은 더 이상 정태적인 수사 범주가 아니라, 저자의 인코딩, 독자의 디코딩, 그리고 문화적 맥락의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재구성되는 개방적 구조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인코딩/디코딩 모델과 이데올로기 차원에 대한 논의는 비홍을 단순한 표현 방식이 아니라 의미의 생성과 협상,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적 메커니즘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비홍이 역사적 수용 과정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의미를 생산하고 재구성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Ⅲ. 비홍의 역사적 인코딩과 해석 전통

앞선 장에서는 비홍을 의미 생성 메커니즘으로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 생성 과정은 추상적인 이론 모델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시학의 역사적 전개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작동해 왔다. 비흥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인 해석 가능성을 유지해 온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서로 다른 시대와 해석 전통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되고 재구성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비흥 개념의 형성과 경학적 해석의 제도화, 그리고 심미적 독해의 확대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비흥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해석 구조를 형성해 왔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1. 비흥 개념의 형성

선진(先秦) 및 한대 초기의 시학 맥락에서 ‘비(比)’와 ‘흥(興)’은 후대와 같은 자율적 문학 개념이라기보다 《시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방법적 범주로 기능하였다. 《모시서(毛詩序)》에 제시된 비흥에 대한 설명은 오랫동안 비흥 이론의 기원으로 간주되어 왔다.¹⁵⁾ 그러나 이 정의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살펴보면, 그 관심은 오늘날의 의미에서 문학적 표현 기법을 설명하는 데 있기보다, 《시경》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었다.

당시 《시경》은 단순한 문학 작품이 아니라 정치와 윤리, 교화를 담당하는 경전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비흥 역시 시적 감흥이나 이미지의 미학적 기능보다, 시 속 의미를 일정한 가치 질서 속에서 해석하고 정당화하는 역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자연 사물은 독립적인 심미적 대상이라기보다 인간 사회의 윤리와 정치 질서를 드러내는 매개로 이해되었으며, 시의 의미는 이러한 해석 체계 속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초기 시학 맥락에서의 비흥은 후대에 논의되는 수사 기법이나 문학 이론이라기보다 하나의 해석 틀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비흥은 독자로 하여금 의미를 자유롭게 생성하도록 유도하기보다는, 이미 공유된 가치 체계 속에서 시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이끄는 기능을 수행하였

15) 阮元 校刻, 《十三經注疏·毛詩正義》, 北京: 中華書局, 1980.

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 틀은 이후 시대의 다양한 독해와 만나면서 점차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였으며, 비홍에 대한 인식 역시 변화하게 된다.

2. 경학적 독해의 제도화

비홍 개념이 형성된 이후, 《시경》에 대한 해석은 점차 국가적 경학 체계 속으로 편입되면서 보다 안정적이고 제도화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한대(漢代)에 이르러 《시경》은 국가 이념과 정치 질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경전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에 따라 비홍 역시 단순한 해석 방법을 넘어 경전을 이해하는 정통적 기준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한대 경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시의 의미를 윤리적·정치적 질서와 긴밀하게 연결하여 이해하였다는 점이다. 《모시서》를 중심으로 한 해석 전통은 개별 시편을 군신 관계, 부부 윤리, 정치 교화와 연결하여 설명하였으며, 16) 자연 이미지는 이러한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상징적 기호로 이해되었다. 예컨대 〈관자〉는 후비의 덕을 찬양하는 작품으로, 〈도화〉는 이상적인 혼인과 가정 질서를 보여 주는 작품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독해 방식 속에서 시의 의미는 개인적 감정이나 개별 독자의 이해에 맡겨지기보다, 사회적으로 승인된 가치 체계 안에서 규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비홍의 기능 역시 변화하게 된다. 초기 시학 맥락에서 비홍이 시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해석 범주로 기능하였다면, 한대 경학에서는 특정한 의미를 정당화하고 안정화하는 해석 장치로 활용되었다. 자연 사물은 더 이상 다양한 의미 가능성을 지닌 개방적 이미지라기보다, 윤리적 가치와 정치적 질서를 설명하는 매개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비홍의 상징 구조는 상대적으로 고정된 해석 방향 속에서 읽히게 되었으며, 독자의

16) 阮元 校刻, 《十三經注疏·毛詩正義》, 北京: 中華書局, 1980.

해석 역시 일정한 규범 안에서 이루어졌다.

물론 이러한 제도화가 비흥의 다의성을 완전히 제거한 것은 아니었다. 동일한 시편에 대해 후대에 서로 다른 해석이 계속 등장하였다는 사실은, 비흥이 본래부터 단일한 의미로 환원되기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다만 한대 경학은 이러한 해석 가능성 가운데 특정한 의미를 중심으로 독해를 조직하고 안정화하려 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경》에 대한 지배적 해석 전통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경학적 독해의 제도화는 이후 비흥이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되는 과정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3. 심미적 독해의 확대

한대 경학이 《시경》의 의미를 윤리와 정치 질서 속에서 안정적으로 규정하려 하였다면, 이후 문학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비흥에 대한 이해 역시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위육조 시기에는 개인의 정서와 심미적 경험이 중시되면서, 비흥은 더 이상 경학적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에만 머무르지 않고 감정과 이미지의 관계를 설명하는 문학적 범주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문심조룡》에 나타난 ‘탁물흥정(托物興情)’이라는 논의에서 잘 드러난다.¹⁷⁾ 여기서 자연 사물은 특정한 윤리적 의미를 전달하는 상징이 아니라 정서를 환기하고 감흥을 일으키는 매개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비흥의 기능 역시 정치적·윤리적 의미를 설명하는 데서 벗어나 사물과 감정의 상호작용을 조직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송대에 이르면 비흥에 대한 이해는 더욱 심화된다. 주희는 흥을 ‘말 밖의 뜻(言外之意)’과 관련지어 설명하면서 시의 의미가 문자 표면에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았다.¹⁸⁾ 이러한 관점은 시의 의미가 독자의 이해 과

17) 劉勰, 《文心雕龍》〈比興〉.

18) 朱熹, 《詩集傳》.

정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비홍을 보다 함축적이고 개방적인 구조로 이해하게 하였다. 물론 송대 시학 역시 유교적 가치 체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실제 독해 과정에서는 도덕적 의미와 심미적 체험이 함께 고려되면서 보다 다양한 해석 가능성이 허용되었다.

이처럼 문학의 자율성 확대와 심미 의식의 성장 속에서 비홍은 점차 경학적 해석의 틀을 넘어 이미지와 정서의 관계를 조직하는 문학적 구조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이후 비홍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재구성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4. 역사적 재인코딩 구조

지금까지 살펴본 비홍 해석의 변화는 단순한 학설의 차이나 문학 취향의 변화로만 이해하기 어렵다. 초기 시학에서는 비홍이 《시경》을 이해하기 위한 해석 틀로 기능하였고, 한대 경학에서는 국가 이념과 결합된 정통적 해석 체계 속에서 의미가 안정적으로 규정되었다. 반면 한위육조 이후에는 심미적 경험과 정서 표현이 강조되면서 비홍에 대한 이해 역시 점차 개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동일한 텍스트가 시대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읽혀 왔음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 <관저>는 한대 경학에서는 후비의 덕을 찬양하는 작품으로 이해되었지만, 후대에는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작품으로도 읽혔다. <검가> 역시 정치적 비유, 이상적 가치의 추구, 연정시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다. 이러한 차이는 텍스트 자체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각 시대의 해석 공동체가 서로 다른 문제의식과 가치 체계 속에서 비홍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비홍의 역사는 하나의 고정된 의미가 반복적으로 전달된 과정이라기보다, 동일한 텍스트가 역사적 맥락에 따라 지속적으로 새롭게 읽히고 재구성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비홍의 의미는 자연 이미지 자체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이미지와 독해 전통, 그리고 시대적

맥락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어 왔다.

따라서 비홍은 단순한 수사 기법이나 표현 방식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대와 해석 공동체 속에서 의미가 반복적으로 생성되고 재구성되는 개방적 구조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사적 재인코딩의 과정은 다음 장에서 살펴볼 〈관저〉, 〈겸가〉, 〈채미〉, 〈도화〉 등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IV. 사례 분석

비홍 의미 생성의 텍스트적 실천 - 〈관저(關雎)〉·〈겸가(蒹葭)〉·〈채미(采芣)〉·〈도화(桃夭)〉를 중심으로 앞선 장에서는 비홍이 역사적 수용과 해석 전통 속에서 지속적으로 의미가 재구성되어 온 구조임을 논증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시경》의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으로 이어가, 비홍 구조가 실제 시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며 의미를 생성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론적 모델과 역사적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가 추상적 차원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개별 작품에 대한 면밀한 독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관저〉, 〈겸가〉, 〈채미〉, 〈도화〉를 중심으로 비홍의 의미 생성 양상을 분석하고, 나아가 역사적 수용 사례를 통해 의미가 재구성되는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들 작품은 《시경》 가운데서도 해석사적 대표성이 높으며, 감정과 윤리의 관계, 이미지와 정서의 형성, 역사적 경험의 의미화 과정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여 준다. 따라서 본 장은 개별 텍스트 분석과 수용사적 검토를 결합함으로써 비홍이 의미 생성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관저〉: 정서에서 예제 상징으로 — ‘이중 인코딩’ 구조의 형성

〈관저〉는 “관관저구, 재하지주(關關雎鳩, 在河之洲)”라는 구절로 시작하며, 저구(雎鳩)라는 자연 이미지를 통해 시의 정조를 제시한다. 초기 민요적 맥락에서 조류 이미지는 짝짓기, 화합, 생식과 같은 경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저구 역시 이러한 자연적 속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저구 이미지는 〈관저〉의 첫 번째 인코딩 층위를 형성한다. 시는 남녀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진술하기보다 자연 사물을 매개로 독자를 구혼과 사랑, 조화의 경험 구조 속으로 이끈다. 이 단계에서 비혼은 의미를 고정하기보다 다양한 감정적 해석 가능성을 열어 두는 개방적 구조로 작동한다.

그러나 한대 경학 전통에 이르러 〈관저〉는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된다. 《모시서》는 이 시를 ‘후비의 덕’을 찬미한 작품으로 규정하며,¹⁹⁾ 시 속의 정서적 요소를 정치 윤리의 질서 안으로 재배치한다. 이 과정에서 저구는 더 이상 자연적 구혼의 상징이 아니라 군주를 보좌하는 후비의 덕성을 표상하는 기호로 전환된다. 홀의 인코딩/디코딩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해석은 전형적인 지배적 디코딩의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시의 의미는 해석 이전에 규정되며, 독자의 이해 경로는 예제와 정치 질서로 강하게 유도된다. 자연 이미지는 더 이상 정서적 가능성을 지닌 상징이 아니라 도덕적 의미를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도구가 된다. 이는 특정한 해석 전통이 시적 의미를 재구성하는 방식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반면 현대 학계에서는 〈관저〉를 기존의 경학적 독해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미 가능성을 지닌 텍스트로 재독해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²⁰⁾ 이러한 독해는 경학적 해석이 시 속의 감정과 욕망의 층위를

19) 阮元 校刻, 《十三經注疏·毛詩正義》, 北京: 中華書局, 1980, 〈關雎〉.

20) 홍유빈, 〈〈關雎〉, 樂而不淫, 哀而不傷에 대한 일고찰 - 〈관저〉는 어떻게 슬픔의 시가 되는가?〉, 《한국한문학》, 2024; 홍유빈, 〈毛詩 〈關雎序〉 속의 ‘賢才’는 누구인가? - ‘요조숙녀’를 ‘賢人’으로 읽어보는 〈關雎〉의 독법〉, 《동양

지나치게 규범화하였다는 점에 주목하며, 비홍 구조가 지닌 개방성을 다시 활성화하려 한다. 따라서 저구 이미지는 더 이상 후비의 덕성만을 상징하는 기호가 아니라 개인의 감정과 삶의 경험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해석은 기존 해석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경학적 독해 속에서 주변화되었던 의미 가능성을 다시 호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관저>는 하나의 고정된 의미로 환원되는 텍스트가 아니라, 서로 다른 역사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는 열린 텍스트로 이해될 수 있다.

2. <겸가>: 모호한 이미지와 ‘도달 불가능성’의 정서 구조

<겸가>는 “겸가창창, 백로위상(蒹葭蒼蒼, 白露爲霜)”이라는 구절로 시작되며, 시 전체에 걸쳐 겸가, 백로, 물, 강 건너편 등의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자연적 차원에서는 특정한 개념을 직접 지시하지 않지만, 시적 맥락 속에서 서로 연결되며 하나의 상징적 연쇄를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의미는 단번에 제시되지 않고 독해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된다. 주희가 말한 바와 같이 비홍의 의미는 문자 표면에 완전히 드러나 있지 않으며, 독자의 이해 과정 속에서 서서히 체득된다.²¹⁾ 이러한 반복과 누적의 구조는 비홍이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장치가 아니라, 의미 형성의 조건을 마련하는 메커니즘임을 보여 준다.

특히 “재수일방(在水一方)”, “도조차장(道阻且長)”과 같은 표현은 화자가 끊임없이 대상에 접근하지만 끝내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제시한다. 시는 ‘접근-차단-재접근’이라는 순환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의미의 완전한 도달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독자로 하여금 끊임없이 대상의 의미를 탐색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겸가>의 정서는 시인이 직접 진술하는

고전연구》, 2023.

21) 朱熹, 《詩集傳》.

것이 아니라 이미지의 배열과 반복을 통해 점진적으로 생성된다. 이는 비흥이 상징의 연쇄를 통해 의미를 유예하고 독자의 해석 참여를 활성화하는 구조임을 잘 보여 준다.

이와 같은 개방성 때문에 〈겸가〉는 해석적으로도 다양한 의미로 읽혀왔다. 어떤 경우에는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연정시로 이해되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인재를 구하는 정치적 비유나 이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적 여정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²²⁾ 이러한 차이는 해석의 혼란이나 오류라기보다 동일한 비흥 구조가 서로 다른 역사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다양하게 이해되어 온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겸가〉의 비흥은 하나의 고정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이 생성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을 제공하며, 바로 이러한 점에서 〈겸가〉는 비흥의 의미 생성 메커니즘을 잘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 〈채미〉: 역사적 맥락 속에서의 비흥과 의미의 재구성

〈채미〉는 “채미채미, 미역작지(采薇采薇, 薇亦作止)”라는 반복 구절로 시작한다. 들에서 나는 고사리(薇)는 반복적인 채취와 임시적 생존을 상징하며, 이는 장기적인 원정 생활과 불안정한 삶의 조건을 암시한다. 이러한 자연 이미지는 시 속에서 군역과 유랑의 경험을 직접 진술하지 않으면서도, 독자로 하여금 전쟁과 이별의 정서를 자연스럽게 연상하도록 만든다. 이 점에서 ‘채미’ 이미지는 개인의 고통과 불안을 담아내는 초기 인코딩 구조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 수용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의미는 새로운 방향으로 재구성된다. 경학 전통에서는 〈채미〉를 개인적 고난의 기록이라기보다 충성과 인의를 실천하는 정치적 텍스트로 해석하였다.²³⁾ 이 과정에서 전쟁과 이

22) 阮元 校刻, 《十三經注疏·毛詩正義》, 北京: 中華書局, 1980, 〈蒹葭〉; 朱熹, 《詩集傳》, 北京: 中華書局, 1983, 〈蒹葭〉.

23) 阮元 校刻, 《十三經注疏·毛詩正義》, 〈采薇〉.

별의 경험은 국가 질서에 대한 헌신이라는 윤리적 가치로 전환되며, 개인의 감정은 집단적 규범 속에 흡수된다. 다시 말해, 원래의 생활 경험은 국가와 예교 질서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재인코딩되었으며, 이는 경학적 해석이 시적 의미를 특정한 방향으로 안정화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현대 연구에서는 〈채미〉를 전쟁의 상흔과 개인의 생존 경험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읽는 경향이 강하다.²⁴⁾ 이러한 독해는 경학적 독해에서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던 감정과 정서의 층위에 주목하며, 비홍 구조가 지닌 개방성을 다시 활성화하려 한다. 따라서 〈채미〉는 단순한 충의의 노래도, 단순한 전쟁 체험의 기록도 아니라,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 속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생산해 온 텍스트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의 변화는 동일한 비홍 구조가 시대와 해석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생성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4. 〈도화〉: 사회적 역할과 의미의 재구성

〈도화〉는 “도지요요, 작작기화(桃之夭夭, 灼灼其華)”라는 구절로 시작한다. 시에 등장하는 복숭아꽃은 봄의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자연 이미지로 제시되며, 젊은 여성이 혼인을 통해 새로운 삶의 단계에 들어서는 과정을 암시한다. 이 점에서 복숭아꽃은 단순한 자연 묘사가 아니라 젊음, 혼인, 생명의 번성을 함축하는 문화적 기호로 기능한다. 비홍은 혼인이라는 사회적 사건을 직접 설명하기보다 자연 이미지를 통해 관련된 정서와 경험을 환기하며, 독자가 의미 형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는 역사적 수용 과정 속에서 고정된 상태로 유지되지 않았다. 한대 이후의 경학 전통에서는 〈도화〉를 단순한 혼인 노래가 아니라 여성의 덕성과 가정 질서를 보여 주는 작품으로 해석하였다.²⁵⁾ 복숭아꽃의 아

24) 장준휘·구문정, <《詩經·小雅·采薇》 ‘我心傷悲, 莫知我哀’ 另解>, 《東亞人文學》41, 2017.

25) 阮元 校刻, 《十三經注疏·毛詩正義》, 北京: 中華書局, 1980, 〈桃夭〉.

름다움과 풍성함은 부덕과 가정의 화목, 자손 번영의 상징으로 이해되었으며, 시의 중심 역시 개인의 감정보다는 예교 질서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복숭아꽃 이미지는 이상적 여성상과 가정 윤리를 표상하는 기호로 전환되며, 비홍의 의미 역시 특정한 사회적 가치 체계 속에서 안정화된다.

반면 현대 연구에서는 <도화>를 여성의 삶과 혼인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읽으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독해는 전통적 예교 해석을 절대적인 의미로 간주하지 않고, 혼인을 앞둔 여성의 감정과 삶의 경험에 주목한다. 따라서 복숭아꽃은 더 이상 이상적 여성 역할만을 상징하는 기호가 아니라, 여성의 삶과 혼인 경험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생성하는 문화적 상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동일한 자연 이미지가 서로 다른 시대적 맥락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해 왔다는 사실은, 비홍이 고정된 의미를 전달하는 수사 장치가 아니라 역사적 조건과 문화적 맥락에 따라 지속적으로 의미가 재구성되는 개방적 구조임을 보여 준다.

5. 역사적 수용과 재인코딩

앞서 살펴본 <관저>, <검가>, <채미>, <도화>의 사례는 비홍이 텍스트 내부에서 다양한 의미 생성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비홍의 의미 생성 메커니즘은 개별 작품의 표현 구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수용 과정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작동한다. 예컨대 <관저>는 한대 경학 전통에서 ‘후비의 덕’을 찬양하는 정치·윤리적 텍스트로 이해되었으나, 후대에는 남녀 간의 사랑과 정서를 표현한 작품으로 다시 읽혔다. <검가> 역시 정치적 비유, 이상적 가치에 대한 추구, 연정시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는 텍스트 자체의 변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수행된 디코딩 과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1〉 비홍 이미지의 역사적 디코딩 변화

작품	주요 이미지	한대 경학	송대시학	현대연구
관저	저구(雕鳩)	후비의 덕, 예교 질서	정서와 덕성의 조화	사랑과 욕망의 표현
검가	검가, 백로	현인 추구	이상적 경지 추구	사랑과 결핍의 정서
채미	고사리(薇)	충의와 국가 질서	역사적 경험의 상징	전쟁과 개인의 고통
도화	복숭아꽃	부덕과 가정 질서	혼인과 화목의 상징	여성의 삶과 혼인 경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자연 이미지는 시대와 해석 공동체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재구성되어 왔다. 이는 비홍의 의미가 이미지 자체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수용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인코딩되어 왔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사례들은 《시경》의 의미가 처음부터 완성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수용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구성되어 왔음을 보여 준다. 제2장에서 살펴본 인코딩/디코딩의 관점에서 보면, 의미는 생산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의 문화적 위치와 사회적 조건 속에서 끊임없이 협상되고 조정된다. 《시경》의 비홍 역시 동일한 구조를 보여 준다. 자연 이미지는 하나의 고정된 의미를 전달하기보다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내포한 상징적 자원으로 기능하며, 각 시대의 독자들은 자신들의 가치 체계와 문제의식에 따라 그것을 새롭게 읽어 왔다. 따라서 비홍의 다의성은 해석의 실패나 우연한 오독의 결과가 아니라 의미 생성 메커니즘 자체가 지닌 구조적 특성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경》은 수천 년에 걸친 역사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생산할 수 있었으며, 비홍은 단순한 표현 기법을 넘어 역사적 재인코딩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적 장치로 기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스튜어트 홀(Stuart Hall)의 표상 이론과 인코딩/디코딩 모델을 분석 틀로 삼아 《시경》 비홍의 의미 생성 방식을 고찰하였다. 기존 연구가 비홍을 주로 수사 기법이나 표현 방식의 차원에서 이해해 왔다면, 본 연구는 비홍을 의미가 생성되고 재구성되는 구조적 메커니즘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비홍은 고정된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 기법이라기보다 자연 이미지와 정서, 그리고 독해 과정의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이해될 수 있다. 〈관저〉, 〈검가〉, 〈채미〉, 〈도화〉의 사례가 보여 주듯이, 동일한 자연 이미지는 시대와 해석 공동체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읽혀 왔으며, 《시경》의 다의성 역시 이러한 역사적 수용 과정 속에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비홍의 의미는 이미지 자체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텍스트와 독자, 그리고 문화적 맥락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속적으로 구성되고 재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시경》의 다의성이 단순히 시대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홀의 표상 이론과 인코딩/디코딩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본 연구는 비홍의 다의성이 단순히 역사적 수용 과정에서 축적된 해석의 산물이 아니라, 비홍 자체가 의미의 생성과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메커니즘이라는 점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논의는 비홍을 표현 기법 중심의 논의에서 의미 생성 구조에 대한 논의로 확장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고전 시학과 현대 문화 이론 사이의 구조적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물론 본 연구는 《시경》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한계를 지니며,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동아시아 시가 전통을 대상으로 비홍의 의미 생성 구조를 비교·확장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 김수경, 〈경전해석방식으로서의 賦比興論〉, 《중국어문논총》 제69집, 2015.
- 김수경, 〈조선시대(朝鮮時代) 부비흥(賦比興) 논의(論議)의 인식층위(認識層位)에 대한 고찰〉, 《한국한문학연구》, 2017.
- 박순철, 〈《시경》의 부·비·흥의 사유방식 연구〉, 《경학》 제8집, 2007.
- 이채문, 〈시경 소재와 부비흥〉, 《중국문학연구》 제12집, 1994.
- 장준휘·구문정, 〈《詩經·小雅·采薇》 ‘我心傷悲, 莫知我哀’另解〉, 《동아인문학》 제41집, 2017.
- 홍유빈, 〈毛詩〈關雎序〉 속의 ‘賢才’는 누구인가? - ‘요조숙녀’를 ‘賢人’으로 읽어보는 〈關雎〉의 독법〉, 《동양고전연구》, 2023.
- 홍유빈, 〈〈關雎〉, 樂而不淫, 哀而不傷에 대한 일고찰 - 〈관저〉는 어떻게 슬픔의 시가 되는가?〉, 《한국한문학》, 2024.
- 劉勰, 《文心雕龍》, 范文瀾 注,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58.
- 朱熹, 《詩集傳》, 北京: 中華書局, 1983.
- 阮元 校刻, 《十三經注疏·毛詩正義》, 北京: 中華書局, 1980.
- 葉嘉瑩, 《中國詩學》, 北京: 三聯書店, 2004.
- 葉嘉瑩, 《迦陵論詩叢稿》, 北京: 中華書局, 2007.
- 袁行霈, 《中國詩學精神》,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 Hall, Stuart. “Encoding/Decoding.” In Culture, Media, Language, edited by Stuart Hall et al., 128-138. London: Hutchinson, 1980.
- Hall, Stuart. “The Rediscovery of ‘Ideology’: Return of the Repressed in Media Studies.” In Culture, Society and the Media, edited by Michael Gurevitch et al., 56-90. London: Methuen, 1982.
- Hall, Stuart. Representation: Cultural Representations and Signifying Practices. London: Sage, 1997.

Hall, Stuart. "The Work of Representation." In *Representation: Cultural Representations and Signifying Practices*, 13-64. London: Sage, 1997.

<Abstract>

Bixing (比興), a key concept in Chinese poetics, has long been a subject of scholarly discussion. Previous studies have primarily examined it from the perspectives of rhetorical function and literary technique. However, such approaches have not adequately explained why the same *bixing* structure continuously generates new meanings and allows for diverse interpretations throughout its historical reception.

Drawing on Stuart Hall's theory of representation and his encoding/decoding model, this study reexamines *bixing* as a mechanism of meaning production. To this end, it investigates the historical reception and processes of re-encoding associated with *bixing*, while analyzing how meaning is generated in specific poetic texts, focusing on "Guanju" (關雎), "Jianjia" (蒹葭), "Caiwei" (采薇), and "Taoyao" (桃夭) from the *Book of Songs* (*Shijing*).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bixing* should not be understood merely as a rhetorical device. Rather, it functions as a structural mechanism through which meaning is produced through the interaction of natural imagery, emotional expression, and readers' interpretive activities. Furthermore, the polysemy of the *Shijing* does not arise from interpretive inadequacies; instead, it derives from the openness inherent in the *bixing* structure itself and from the historical processes of re-encoding that

continuously reshape its meanings. The fact that identical natural images have repeatedly acquired new meanings across different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s indicates that *bixing* has functioned as a cultural mechanism that enables the production and negotiation of meaning.

By reinterpreting *bixing* as a structure of meaning generation rather than merely a literary technique, this study offers a new perspective for explaining the enduring polysemy of the *Shijing*. It also contributes to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a structural dialogue between classical Chinese poetics and contemporary cultural theory.

Key Words : 《시경》(Shijing), 비홍(Bixing), 의미 생성(Meaning-Making),
표상 이론(Representation Theory), 인코딩/디코딩 모델
(Encoding/ Decoding Model), 수용사(Reception History)

